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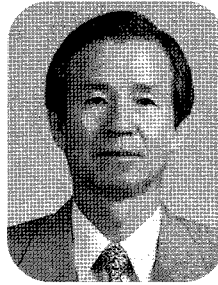
# ICID를 발판으로 북한농업 지원방안 모색을...

세상은 정말 급변하고 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여, 마야흐로 우리는 Cyberspace 시대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의 시대를 과거 산업혁명시대와 비교한다면, 가히 “공간 혁명”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반세기 동안이나 이념적으로 갈라져서 비극적인 대결을 벌여 오던 한반도의 분단시대도 이제 종지부를 찍을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우리도 이러한 방향으로 시각을 돌려서 우리 농공 기술인들이 한반도의 통일 농업, 나아가서 이를 매체로 하여 조국통일 성업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 봐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업이기도 하다.

국가 안보와 에너지 개발문제와 연계하여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라는 간판을 내걸고 한국 전력공사가 이미 북한에 들어가 있으며, 북녘땅의 산업기지 개발, 도로건설, 관광자원 개발 등을 위하여 관련 기관들이 북녘 땅에의 진출을 모색하는 등, 우리는 이미 북한 땅의 Infra 개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Infra 개발 보다도 더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다루는, 농업의 Infra 개발에는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의 힘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긴박한 식량문제는 우리 한반도 내의 차원을 벗어나서 국제적인 관심사가 되어 온지 이미 오래다. 많은 나라와 국제기관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 식량지원문제는 우리가



이근모

한국관개배수위원회 부회장  
농어촌진흥공사 부사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제적인 흐름에 떠밀려 가고 있다는 인상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KEDO 발족이 미국에 의해 주도되었던 것처럼 말이다. 대북 식량지원문제도 우리가 미리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피동적이었던 대북 경수지원사업과 같은 모양새로 발전되고 말 것이다. UNDP에서는 이미 작년도에 이와 비슷한 내용의 대북 농업지원방안

을 구상하여 상품화해 놓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대부분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계획을 언론에 넉넉히 흘려 보낸 바도 있다.

우리는 남북한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식량지원 수준에서 좀 더 진일보하여 최근에는 비료, 농약, 경운기 등 농업기장재를 지원하는 차원으로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재의 지원은 긴박한 식량문제를 겪고 있는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덜어 주는 진통제의 역할을 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어디까지나 미봉적인 지원에 지나지 않을 뿐,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다.

지금 북한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홍수와 한해를 해결해 주는, 즉 북한농업의 Infrastructure를 여하히 개발시켜 주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극심한 한해로 물이 없어서, 아니면 홍수로 물이 넘쳐서 근본적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 북녘 땅의 농업이 처하고

있는 긴박한 현실임을 생각해 볼 때, 농약이나 비료, 경운기 등의 농업 기자재 지원 차원을 넘어, 농업용수를 개발하고 관개 배수 수로망을 만들어 주어 복녘 땅의 농지기반을 조성하여 주는, 보다 근원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 지원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북한의 농업문제, 특히 피폐된 복녘 땅을 한해와 홍수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일은 이제 우리 농공기술인들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과업이 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사업지역이 한반도의 남쪽 절반 땅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의 사업지역이 한반도 전역을 망라하게 된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시대적 과업은 우리가 접근하기에 따라서는 다른 어떤 사업 보다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 밀거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를 계기로 복녘 땅의 개방화를 촉진하여, 분단 조국 통일의 실마리를 푸는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며 이러한 준비는 우리 농공기술인들이 담당해야 할 사명인 것이다. 정부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접근방법 보다도 이 분야의 비정치적 비정부조직(NGO)의 국제기구, 예를 들면,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같은 조직을 내세우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방법 중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본다.

먼저 ICID로 하여금 북한당국을 접촉케 하여 북한이 ICID 회원국으로 가입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ICID 회원국으로 가입할 경우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ICID내에 Aral Basin Work Team과 같은 성격의 가칭 북한농업실무위(Work Team on North Korean Agriculture)를 구성토록 하여, 이 조직을 통하여 UNDP, FAO, IFAD와 같은 다자간 협력기구나, 미국, 일본 등 여타 양자간 이해 당사국들이 참여토록 유도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남북한 간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과 이에 따른 재정

적인 부담이 뒤 따를 것이다.

우리는 작년 9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전세계 87개 회원국이 참가하는 ICID 총회에 참석하여, 미국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2001년도에 개최될 「ICID 제52차 집행위원회의」와 「제1차 아시아 지역회의」를 서울에 유치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만약 북한을 ICID 회원국으로 가입시키게 된다면 2001년의 ICID 서울국제회의에 북한 대표도 자연스럽게 참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KCID는 북한의 개방화 유도에도 일조를 하는 셈이 될 것이다. 여기에다 한가지 더 한다면, 2001년 쯤에는 남북한 간의 긴장도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아, 복녘 땅을 서울 국제회의의 사업지구 견학코스에 포함시키는 것도 한 번쯤 욕심을 부려 볼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북한이 자랑하는 남포 배수갑문 같은 것을 견학코스에 포함시켜 우리의 새만금 배수갑문과 비교해 보는 것도 뜻있는 일이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 9월 영국 옥스포드에서 개최된 ICID 집행위원회에 한국의 대표단장 자격으로 참석하여, 북한의 ICID 회원국 가입문제에 대하여 ICID의 집행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도 있다.

ICID는 순수한 비정치적인 국제기술단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북한의 수리시설 복구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ICID를 발판으로 하여 지금 시행되고 있는 KEDO와 같은 성격의 국제 콘소시엄을 형성하여, 이른바, “북한농업개발기구(NKADO - North Korean Agricultural Development Organization)” 같은 조직의 이름으로 북한 땅에 발을 들여 놓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KEDO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은 역할을 NKADO에서는 농어촌진흥공사가 맡게 될 것이다.

이제 시대는 변하여 북한의 수리사업이라는 과업이 우리 농공기술인들의 어깨위에 놓여 있다. 우리 스스로가 창조적인 주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훗날 통일된 한국에서 후진 농공기술인들이 우리의 선배들도 조국의 통일 성업에 한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겠다.